"원자재값 협의없이 통보받아"

중소제조업체 10명 중 6명이 응답… 대기업 일방적 가격 인상, 경영에 악영향

대기업의 일방적 원자재 가격인상이 중소제조업체의 경영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제조업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자재 가격변동 및 수급불안정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제품 생산 시 주로 쓰이는 원자재로 '철강(34.2%)'과 '비철금속(39.0%)'이 가장 많았으며, '목재/종이류(12.4%)', '석유/화학(10.4%)' 순으로 응답했다.

전년 말 기준, 중소제조업체 주사용 원자재의 89.9%가 상승했으며 가격 상승 시 변동은 '평균 33.2%'였다. 특히 타 원자재 대비 '후판(61.2%)', '냉연강판(56.0%)', '선철(54.8%)' 등 철강 원자재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은 49.6%로 기업 2곳 중 1곳에 이르며, 원자재 가격변동이 영업이익에 부정적이라는 응답 또한 87.4%로 원자재 가격변동이 기업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제조업체 61.8%가 '원자재 생산 대기업의 가격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받는다'고 답했으며, '구두협의(21.0%)' 및 '계약서 작성(16.6%)'가 뒤를 이었다. 원자재 가격 변동주기 또한 '수시(76.2%)'가 가장 많고, 1년 단위는 16.8%로 나타났다.

반면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위탁기업과의 납품단가 협상주기는 '1년(40.4%)', '수시(38.4%)' 순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주기(수시, 76.2%)와 시차가 존재했다.

원자재 가격상승분에 따른 납품단가 반영여부의 경우, '일부만 반영(43.2%)' 및 '전혀 못함(43.0%)'이 전체의 86%로 가격 변동 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없다(71.4%)'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납품대금 현실화를 위한 노력으로 '원가연동제(37.4%)'가 가장 필요하며 그 다음으로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활성화(31.4%), 대기업의 상생의지(22.8%)순으로 응답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제조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인상과 납품단가 미반영 사이에 샌드위치 상황"이라며 "대기업은 예고 없는 원자재가격 수시인상과 일방적 가격 통보를 지양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경력단절여성 취업 후 10명 중 7명 '고용 유지'

지난해 기준… 직종별 취업자는 제조업 분야가 24.1%로 가장 많아

전북광역·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윤애 센터장)가 지난해 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경력단절여성 4,777명 중 상용직 분야에 취업한 2,623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현황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2009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 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전문취업상담사의 구인·구직 매칭, 사전·사후 심층상담관리를 통한 전문적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가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인턴십 지원도 고용유지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이었다.

매년 1월과 7월 연 2회 실시하는 상용분야 취업자 고용유지율 조사는 취업자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새일센터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현황 뿐 아니라 퇴직 및 이직 사유, 직장생활 고충 토로, 경력개발 교육정보 제공 등을 제공하며, 1:1 유선 및 면접조사로 진행된다.

2020년 직종별 상용직 취업자는 제조분야가 전체 24.1%(632명)으로 조사돼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사회복지분야 20.9%(549명), 보건의료 473명(18.0%), 사무회계 330명(12.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용분야 취업자 중 직종별 고용유지율을 분석한 결과 여성친화직종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분야에서 23.5%(447명)으로 고용유지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보건의료분야 20.4%, 제조분야 19.3%로 조사됐다.

더불어 재취업 성공 후 중도 탈락한 720명을 분석한 결과 개인 사유로는 자녀와 가족 돌봄(5.7%), 직장 부적응 208명(28.9%) 등으로 조사됐으며 근무환경 열악 30명(4.2%)과 계약기간 만료, 폐업 80명(11.1%)이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확인됐다.

특이할만한 점은 개인 퇴직사유 중 집안사정에 의한 퇴직이 93명(12.9%)로 도내 군 단위 농촌지역 거주 환경에 따라 작물재배 등 계절적인 요인에 따른 자발적 퇴사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돼 향후 취업지원 시 구직여성과의 초기 심층상담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간제 일자리 등 유연근무가 가능한 일자리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윤애 센터장은 "고용유지율조사는 경력단절여성 대상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일·생활균형 보장으로 고용유지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며 "경력단절여성의 전공, 경력,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대상별 욕구에 맞춘 다양하고 전문적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센터는 재직여성의 경력단절과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후 재 이탈 방지를 위해 2017년부터 경력단절예방 전문상담사 전담인력 배치와 함께 여성고용유지지원, 직장문화개선, 경력단절예방협력망 구축 및 인식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도내 분양 성공 이어온 계성건설 이지움, 김제에 상륙

상징성·희소성·접근성 뛰어나

주거 선호도 높은 검산동에 '이지움 라프라임' 첫 분양

김제 검산 이지움 라프라임 야경 투시도.

전주와 익산 등 전북지역에서 분양성공을 이어온 계성건설 이지움이 김제시 검산동에서도 신규 분양을 앞두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018~2021년 4년 연속 전라북도 시공능력평가 1위를 기록한 계성건설은 수요자의 선호도 또한 매우 높은 브랜드로 꼽힌다. 올해로 업력 28년차인 계성건설은 2016년 대한민국 소비문화대상 소비자 권익보호 부문 수상에 이어 2018 주거환경 대상 수상, 2019년 LH 전국 최우수 업체 선정 등 뛰어난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왔다.

지난 2014년 전주 덕진구 인후동에 공급한 '건지산 이지움' 아파트는 부동산 침체기에도 불과 1주 만에 100% 계약을 완료한 바 있으며, 2018년 '만성 이지움 레이크 테라스'는 그해 전주시 최고가의 분양가로 최고 150대 1, 평균 51대 1의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고, 지난해 '익산 이지움 더 테라스 아트라체' 역시 최고 34대 1, 평균 3.4대 1로 전 주택이 1순위 마감되는 등 분양하는 아파트 마다 전북 지역민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에 따라 계성건설이 새롭게 공급하는 김제시 검산동 '검산 이지움 라프라임' 분양에서도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얻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검산 이지움 라프라임'은 김제시 최초의 계성건설 이지움 브랜드 아파트이자 김제시 최초의 27층 랜드마크 아파트로 상징성과 희소성이 뛰어나며, 김제시에서 주거 선호도가 높은 검산동 중심입지에 들어서 눈길을 끈다.

계성건설이 이달 중 전북 김제시 검산동 833-1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검산 이지움 라프라임'은 연면적 2만9,519.1699㎡,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규모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구성으로 총 188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차량 10분 거리 위치 김제IC·서김제IC 등 통해 호남고속도로 쉽게 이용

사업지 바로 옆 홈플러스 비롯 경찰서·은행 등 생활 인프라도 다채

사업지인 김제시 검산동은 김제시의 대표적인 주거밀집지역으로, KTX 김제역과 김제종합버스터미널도 인접해, 김제시 내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한 김제IC와 서김제IC를 통해 호남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인근 군산, 익산, 전주는 물론, 광역 접근성도 뛰어나다.

'검산 이지움 라프라임'은 사업지 바로 옆 홈플러스를 비롯해 경찰서, 법원, 세무서, 은행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생활환경이 매우 뛰어나다.

교육시설로는 김제초, 김제동초, 김제검산초, 김제중, 김제중앙중, 금성여중, 김제여중, 김제고,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등 초, 중, 고교가 인접해 있으며, 주변에 학원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검산 이지움 라프라임'은 개방감이 뛰어나고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형 4베이 판상형으로 구성된다. 타입별로는 84㎡ A타입(8만4.6825㎡) 136세대, 84㎡ B타입(84.7634㎡) 52세대로 구성되며, 모든 방이 남향위주로 배치되고 세대별로 현관 대형 창고, 파워클리닝룸, 보조주방, 대용량 드레스룸 등이 제공 된다. 또한 홈 IOT 시스템을 통한 음성인식 자동제어와 세대카드를 통해 지하 공동현관 자동개방 및 E/V콜 등의 원패스 시스템도 갖췄다.

아파트 내에는 커뮤니티센터(독서실, 문고 등)를 비롯해 간편하게 차량 내부를 건식청소할 수 있는 카케어존, 세대 개별 창고, 실내 스크린 골프장, 휘트니스센터, 맘스카페, 주민회의실, 경로당, 무인택배함,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또한, 계약금 5%, 중도금 무이자 등을 적용, 계약자의 초기 내집마련 부담을 최소화해 선보일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저신용 소상공 신속 금융지원

NH농협은행, 지원 특례보증대출 전담창구 운영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상담 및 금융지원을 위해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대출'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고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며, 정부로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일반업종 매출감소 기업으로 도내 NH농협은행 영업점에 별도 마련된 전담창구를 통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최대 2천만 원이며 기간 및 상환방법은 5년(1년거치) 원금균등분할상환이고 금리는 연 2.3%이다. 또한 담보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전액 보증서로 보증료는 0.4%이내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가 된다.

해당 대출의 지원대상이 아니더라도 NH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 집합제한업종 임차소상공인대출 등 다양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은행 영업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장기요 본부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재확산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농협은행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조속히 자금이 지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 소상공 프로보노단, 김제 전통시장 청년상인 찾아 멘토링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은 10일 백년가게 전북지역협의회(회장 김태정)와 함께 김제전통시장 청년몰에 입주한 청년상인들을 찾아 '전북 소상공인 프로보노단' 활동의 일환으로 백종원식 맞춤형 멘토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멘토링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올해 1월 개소한 김제전통시장 청년몰에 입주한 상인중 퓨전떡 전문점 '달나리방앗간'과 쌀디저트 전문점 '연희당'으로 오랜기간 동종업계에서 업력을 유지해온 백년멘토의 실전노하우를 통해 메뉴개발과 판로개척 등 경영애로를 해결하고자 프로보노단의 문을 두드렸다.

백년가게 신가네정읍국밥의 김종성 대표가 멘토로 참여한 이날 멘토링에는 3대를 잇는 장인정신으로 만든 모싯잎송편이 유명한 다복솔떡의 고운주 대표가 떡류 제조 외부전문가로 참여해 경영현장에서 체득한 문제해결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현안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했다. 또한 대표메뉴 품평회를 통해 메뉴개발과 레시피에 대한 토론과 의견공유의 시간도 가졌다.

윤종욱 청장은 "이번 멘토링을 통해 청년창업자들의 열정에 백년멘토의 경험과 노하우가 더해져 창업초기 경영애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전북중기청도 백년멘토의 경영노하우와 성공모델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고창산림조합, 벌초 묘지관리 대행서비스 실시

고창군산림조합이 추석을 앞두고 벌초 대행과 종합적인 묘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벌초·묘지관리 대행서비스'를 신청·접수한다.

고창군산림조합의 묘지관리 전문기술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용객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코로나19로 가족간 모임과 이동이 어려운 출향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벌초·묘지관리 대행 서비스 신청은 산림경영지원시스템 또는 전화접수(☎063-563-2438)→현장확인 및 견적안내→작업진행→완료사진 전송 순이며 접수시 희망일자, 할인대상, 임야관리 안내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김영건 조합장은 지속된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벌초대행서비스 이용객과 조합원의 마음을 이해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정성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유통 상향평준화 주도… 전북농협 산지유통 핵심리더 5인 선정

이영철 김승규 하연수 홍남귀 한창희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10일 지역농협과 조합공동사업법인 현장 실무 책임자로 구성된 산지유통관리자 114명 중 '핵심리더' 5인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5인은 전북지역 산지유통 핵심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각종 현안에 대한 멘토링과 현장컨설팅 통해 지역 농산물 유통의 상향평준화를 주도하게 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련 정책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지자체 정책 반영토록 현장과 가교역할 수행

이번에 선정된 '핵심리더' 5인은 이영철 센터장(무주농협APC), 김승규 센터장(익산원예농협APC), 하연수 센터장(전주농협APC), 홍남귀 상무(화산농협), 한창희 과장(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올해 전북 농산물 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담할 능력 있는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전북농협은 "금차 선정된 리더들과 함께 전북농산물 판매를 책임질 산지유통관리자의 건전한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밀 형질전환 기술 효율성 'UP'

개화 후 18일 된 품종 미성숙 종자서 염색체 형광 단백질 유전자 도입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기존 형질전환 기술보다 높은 효율성과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밀 형질전환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식량작물 중 하나인 밀은 형질전환 효율이 낮아 유용 유전자 발굴, 기능 분석 등 분자생물학 기반 기초연구와 유전자 교정(genome editing)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밀 형질전환 효율이 낮은 이유는 밀의 유전체(게놈) 크기가 16억 염기쌍(16Gb)으로 벼(0.4Gb)보다 거대하고, 밀이 진화하면서 세 가지 종류 밀 조상들의 염색체가 섞여 복잡한 배수체의 염색체를 형성해 외래 유전자를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의 최대 장점은 높은 효율성으로, 기존 국내 학계에 보고된 밀 형질전환 효율(1% 미만)보다 높은 1~6%의 형질 전환 효율을 보인다. 개화 후 15~18일 된 밀 품종 '금강'과 '오프리'의 미성숙 종자에서 배를 분리한 후 유전자총 방법을 이용해 밀의 염색체에 형광 단백질 유전자를 도입했다. 이렇게 도입된 유전자가 제대로 자리 잡았는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지는 형광 발현으로 확인했다.

또한 다음 세대의 식물체에도 안정적으로 유전되는지 확인했는데, 이것은 기존(국내)에 연구해온 밀 형질전환 기술에서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이번에 개발된 기술만의 특징이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로 형질전환 효율이 높아짐에 따라 밀 유전자 기능과 유전자 발현 조절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기술의 후속 연구로 항원 단백질 분석기술,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해 특정 밀 알레르기의 항원 단백질을 제거한 알레르기 저감 밀 탐색과 소재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 결과를 식물생명공학 분야 저널에 게재했고, 관련 특허 1건을 출원 중이다.

농촌진흥청 생물소재공학과 정미정 과장은 "이번 기술로 국내 밀에 대한 분자생물학 기반 유용 유전자 탐색 및 기능검정과 함께 유전체, 대사체, 전사체 등 생명공학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윤상기자